

## 관세피해 우려업종의 한계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합니다.

- ◆ 석유화학·철강·자동차·이차전지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(이하 주력산업)의 한계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당초 계획대비 확대 조성 추진(조성목표액 : 5천억 → 1조로 상향)
- ◆ 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 후 10월 중에 4개 운용사(블라인드 펀드)를 선정하여 신속히 펀드 조성 완료 예정
  - 또한, 조성금액의 60%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고,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(5%→10%)

### I.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배경

금융위원회는 美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,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선제적 조성을 추진한다.

#### <기업구조혁신펀드(6호) 주력산업>

| 구분  | 주력산업(집중투자산업) |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|
| 산업명 | 석유화학         | 반도체 | 자동차  |
|     | 디스플레이        | 철강  | 이차전지 |

\* 6개 산업에 해당하는 상세업종(표준산업분류 기준)은 운용사 모집공고문 참조

☞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개요 : [참고1 참조](#)

당초 '25년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(예산 500억 반영)하였으나,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.

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,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이다. 그간 '18년부터 5차례(1~5호)에 걸쳐 총 7.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.5조원을 투자('25.7월 기준)했으며,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·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.

#### <투자 사례>

##### ① (철강업체 A사) 생산 및 유통과정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물량 회복

-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美 정부가 시행한 해외수입품 쿼터제와 관세율 상향으로, 미국에 강관 등을 수출하던 A사는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위기 직면
-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470억원을 투자하였으며, A사는 생산 및 유통과정 구조조정 후 대미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하며 수출물량 회복 및 영업이익 증가

##### ② (조선업체 B사) 재무 구조조정 후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

- 조선업 장기불황 및 저가 수주 등 산업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중소형 조선사인 B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기업회생 신청
-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1,009억 투자 및 경영권 인수(+전략적 투자자)를 통한 재무 구조조정 및 운전자금 공급 이후,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상승으로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

## II.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주요 특징

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美 관세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산업(6개 산업)에 집중 투자한다.

① (펀드구성) 총 조성 금액의 60%이상 주력산업에 투자되도록 주력산업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(최소 2,500억)를 신설하고,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(최소 3,750억)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.

#### <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펀드조성 계획 >

(단위 : 억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| 모펀드<br>출자액 | 민간매칭액<br>(최소) | 총 조성규모<br>(최소) | 민간자금<br>매칭비율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블라인드 | 주력산업 집중투자(1개) | 1,500      | 1,000         | 2,500          | 40% 이상       |
|      | 소형(3개)        | 1,500      | 2,250         | 3,750          | 60% 이상       |
| 프로젝트 | 주력산업 전용재원     | 2,000      | 1,750         | 3,750          | 47% 이상       |
| 합 계  |               | 5,000      | 5,000         | 10,000         | -            |

② (후순위 비중)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(산은, 수은, 기은, 캄코)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(5,000억) 중 1,000억(정부재정 500억 및 캄코 500억, 총 조성규모의 10% 수준)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였다.

\* 4호('23) 및 5호('24) 펀드의 후순위재원 : 500억(총 조성목표액(1조)의 5%)

③ (인센티브)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,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·간접적 유인 제공으로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·소형 협력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. 또한, 금융당국은 동 펀드의 지원목적,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부감독, 하방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%로 낮추어 적용(기존 최대 400%)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였다.

### III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한국자산관리공사(모펀드 업무집행사원)는 9월 3일(수)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\*한다. 자펀드(블라인드) 운용사의 경우, 9월 24일(수)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 10월말에는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.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\*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>공지사항>'위탁운용사 모집공고문' 참조(9.3일~)

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한,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(약2.9조/'25.7월말 기준, 6호 목표조성액(1조) 포함)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금융위원회<br>기업구조개선과    | 책임자 | 과 장 | 양윤영 (02-2100-29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유란 (02-2100-2922) |
|       | 금융감독원<br>은행감독국      | 책임자 | 국 장 | 김형원 (02-3145-802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김정일 (02-3145-8060) |
|       | 한국자산관리공사<br>기업지원총괄처 | 책임자 | 처 장 | 문병삼 (051-794-360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팀 장 | 하익신 (02-3420-5113) |



## 참고 1

##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개요

- (개요) 美 관세부과 등 통상 리스크에 따라 경영정상화 지원이 필요한 수출기반 주력산업\* 중점 투자

\* 석유화학, 철강, 자동차, 이차전지, 반도체, 디스플레이

- 주력산업의 산업경쟁력 회복 및 경기변동성 대응 등을 위해 사업재편·재무구조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신규펀드 조성

- (조성 규모)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

- 재정(500억원)과 정책자금(4,500억원)을 마중물로 민간자금(5,000억원 이상) 매칭

- (투자 대상) 사전적·사후적 구조조정 대상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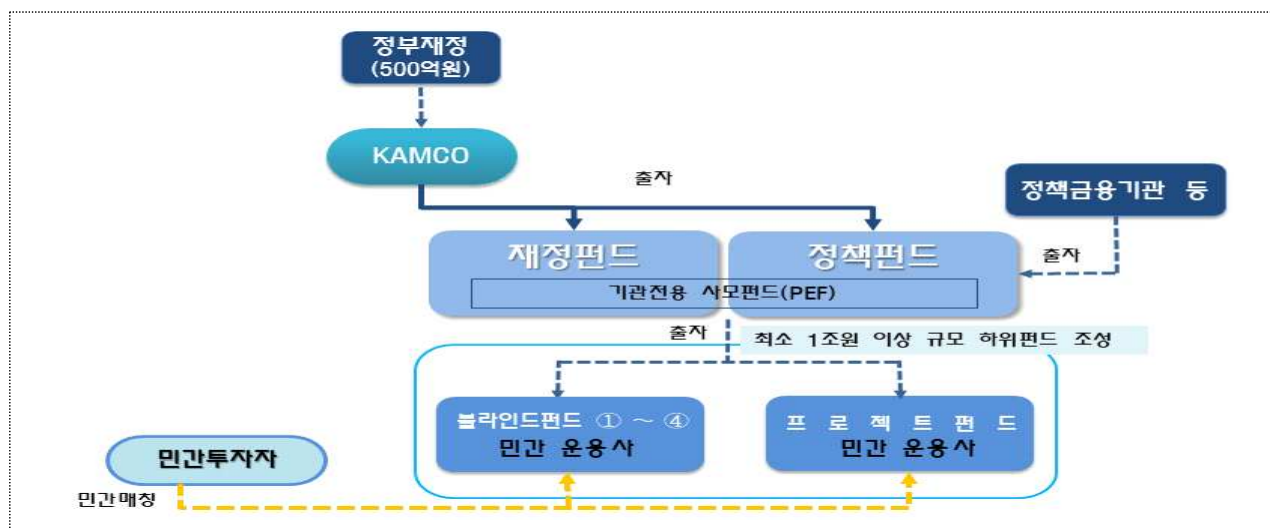
\* 사전적 구조조정기업 : 기업활력법 대상기업, 자본시장법상 재무안정PEF 대상기업 등

사후적 구조조정기업 : 부실징후기업, 회생,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기업

- (펀드 구조) 재정·정책금융기관이 ①모펀드 조성 → 민간운용사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②자펀드 조성·운용(Fund of funds)

- 주력산업 전용펀드(블라인드)를 신설하고, 주력산업 전용 투자재원을 마련(프로젝트)하는 등 피해업종 집중투자 체계 마련

### 【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구조도 】



## 참고 2

##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회차별 특징 비교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1호<br>(‘18년~)        | 2호*<br>(‘20년~)              | 3호*<br>(‘21년~)      | 4호<br>(‘23년~)       | 5호*<br>(‘24년~)      | 6호*<br>(‘25년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용주체                      | 한국성장<br>금융           | 좌동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좌동                  | 한국자산<br>관리공사        | 한국자산<br>관리공사        | 한국자산<br>관리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모펀드<br>총액                 | 5,415억원              | 5,015억원                     | 4,510억원             | 5,000억원             | 5,000억원             | 5,000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블라인드<br>펀드<br>출자액<br>(비중) | 4,000억원<br>(약 73.9%) | 3,009억원<br>(60.0%)          | 3,000억원<br>(약66.5%) | 2,800억원<br>(약56.0%) | 3,350억원<br>(약67.0%) | 3,000억원<br>(60.0%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프로젝트<br>펀드<br>출자액<br>(비중) | 1,415억원<br>(약 26.1%) | 2,006억원<br>(40.0%)          | 1,510억원<br>(약33.5%) | 2,200억원<br>(약44.0%) | 1,650억원<br>(약33.0%) | 2,000억원<br>(40.0%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투자대상<br>기업                | 중소·중견<br>기업          | 중소·중견<br>위주<br>(대기업도<br>포함) | 좌동                  | 좌동                  | 좌동                  | 6개<br>주력산업의<br>중소·중견<br>위주<br>(대기업도<br>포함) |

\* 재정출자사업